



금감원, 2011년 퇴직연금시장 현황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보험·신탁의 효력 만료와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말 대비 71.3% 증가한 49조 9,168억 원을 기록함.

-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이 4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생명보험(25.6%), 증권(18.0%), 손해보험(7.8%) 순으로 나타남.
-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75.2%,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.4%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정성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됨.
- 2011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13만 9,151개소(도입률: 9.2%)로 나타났고, 가입자 수는 328만 3,608명(가입률: 36.0%)을 기록함.
- 2011년 말 기준 총 57개사(은행 17, 생명보험 14, 손해보험 8, 증권 17, 근로복지공단)가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■ 금감원은 2012년 퇴직연금시장과 관련하여 적립금 규모를 70조 원 내외로 예상하는 한편, 경쟁방식에서도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.

- 금감원은 과거 3년간 퇴직자산 성장률 추이를 기반으로 2012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약 70조 원으로 전망함.
- 또한,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퇴직보험·신탁 전환 효과로 가파르게 성장한 퇴직연금시장이 2012년부터는 계속부담금에 의한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.
- 특히,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금리 경쟁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.

■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.

- 고금리 과당 경쟁, 특별이익 제공, 계약 강요, 계열사 계약독점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함.
-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여 가입자의 권익 제고에 노력함.
-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, 퇴직연금 업무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임.

(2011년 말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50조 원으로 성장, 금감원, 2/7)